

# 사회자본의 경제안정화 효과

## - 사회신뢰를 중심으로

김정훈\* · 김기호\*\*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사회자본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사회신뢰와 경제안정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다. 패널회귀와 패널분위회귀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사회신뢰 지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고용률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1인당 GDP성장률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혼재된 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변동성에 대한 사회신뢰 지표의 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부호를 갖는 경우만을 비교할 때에는 1인당 GDP성장률 안정성에 대한 영향이 고용률의 안정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을 확인했다. 그리고 정부신뢰도와 의회신뢰도는 1인당 GDP성장률과 고용률의 안정성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경제 및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정치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핵심주제어: 사회자본, 사회신뢰, 경제안정, 고용안정, 패널분위회귀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B55, E02, E32

## I. 서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경제성장률이 3% 내외에 묶여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가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과거 고도성장 시기에도 사회의 성숙도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러움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저성장 탈출’만으로는 국가 발전과 국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 측면에서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는 한국 경제의 경우

\* 이 논문은 경기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수행한 『사회자본의 경제안정화 효과 분석』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데이터 정리에 도움을 준 경기연구원 이다겸 연구원과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 제1저자,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전화: (031) 850-6004, E-mail: jh6911@gri.re.kr

\*\*\* 교신저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전화: (02) 759-5422, E-mail: kihokim@bok.or.kr

논문투고일: 2018. 4. 30    수정일: 2018. 6. 3    게재확정일: 2018. 6. 19

경제성장률의 둔화를 완화하거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과제만큼이나 시민의식의 성숙과 문화·제도적 측면을 강화하는 과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포용적 발전’(inclusive development)의 지향과 ‘경제안정성’의 확대와도 긴밀히 관련된다. 즉, 보다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분배를 통해 사회적 격차를 축소시키는 가운데 경제 불안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문화·제도적 기반의 확립을 통해 우리 사회의 경제적 성숙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sup>1)</sup>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축적은 이와 같은 포용적 발전과 경제안정성을 이루기 위한 토대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최근 들어 국가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통화정책 혹은 재정정책 등 전통적 방식의 정부정책 뿐만 아니라 제도, 규범,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이며, ‘신뢰’, ‘호혜성의 규범’, ‘사회 네트워크’ 등을 포괄하는 사회자본은 중장기적 경제안정을 위한 사회적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사회자본은 단기적 경제안정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인 정부개입 정책의 실효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자본과 관련한 초기 연구는 1980년대 Bourdieu와 Coleman의 선도적 연구를 기점으로 주로 사회학과 정치학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한편, 경제학 분야에서 사회자본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이탈리아의 남부와 북부의 경제발전 격차를 사회자본의 차이를 통해 설명한 Putnam(1993)의 연구가 발표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사회자본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의 경우 이론적 측면에서는 개별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 행위에 초점을 둔 미시적 접근에 기초하여 발전해 온 반면, 실증적 측면에서는 사회자본(특히, 사회신뢰)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 거시적 접근에 기초하여 발전해 왔다. 기존 실증분석의 대부분은 사회자본이 거래비용의 감소와 경제협력의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Knack and Keefer, 1997; Zak and Knack, 2001; Beugelsdijk *et al.*, 2004; Bjørnskov, 2006, 2007; Berggren *et al.*, 2008).<sup>2)</sup> 특히, 거시적 측면에서의 사회자본이라 할 수 있는 일반화된 사회자본

1) 과거 고도성장 시기에는 높은 성장률이 경기 변동의 여파를 상쇄시키거나 빠른 경제 회복이 외부충격을 해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낮은 성장의 시기에는 급격한 경기 변동이나 경제 불안이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변화시켜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의 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2) 반면 Helliwell(1996), Knack(2003), Coates and Heckelman(2003), Beugelsdijk and van Schaik(2005) 등은 사회자본과 경제성장 간에 음의 관계가 있거나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generalized social capital)은 시민들 간 상호 책임성에 기초한 협력을 가능하게 하여, 국가·사회적 관계로부터 시너지 효과(긍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고 제도적 응집력과 경쟁력 제고 등 국가적 역량을 높임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사회자본과 경제안정 간의 관계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미진한 실정이다.<sup>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부분적으로 다루어 온 주요 문헌들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사회자본이 정부의 경제관리 능력 제고, 사회적 갈등 및 미래 불확실성 완화, 대내외 충격에 대한 공동 대응력 강화, 사회적 경제부문의 활성화, 고용 안정성 향상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적 안정과 회복력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사회자본이 경제안정에 미치는 경로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자본의 주요 구성 요소인 사회신뢰 지표들과 경제안정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sup>4)</sup>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절에서는 사회자본의 다양한 정의와 구성 요소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제Ⅲ절에서는 사회자본이 경제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경로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제Ⅳ절에서는 사회자본, 특히 사회신뢰가 경제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이 연구의 실증분석이 선행 연구인 Sangnier(2013)와 차별되는 점은 그가 일반화된 신뢰만을 설명변수로서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한 반면, 우리는 이 변수뿐만 아니라 사회자본과 관련한 다른 변수들을 포함함으로써 경제변동성의 축소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의 요소를 식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또한 최근 고용안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신뢰가 고용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동시에 진행한다. 아울러 방법론 측면에서 패널회귀분석뿐만 아니라 패널분위회귀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여 실증 분석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 제Ⅳ절은 요약 및 시사점이다.

3) 이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Sangnier(2013)가 현재까지 거의 유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4) 사회자본의 다른 구성 요소들(제Ⅱ절 참고)의 경우 데이터 확보의 문제로 인해 실증분석에 한계가 있다.

## II. 사회자본의 개념 및 구성 요소

1990년대 들어서 사회자본에 대한 논의가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그 개념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sup>5)</sup> 이는 사회자본의 개념이 상당히 폭넓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학자들에 따라 정의를 다르게 내리고 있으며 분석 목적에 따라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르게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sup>6)</sup> 이 절에서는 주요 학자들이 제시한 사회자본의 정의와 개념을 소개하고 사회자본의 차원 및 유형, 그리고 구성 요소에 대해 간략히 논의하도록 한다.

### 1. 사회자본의 개념 및 특성

현대적 의미에서 사회자본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킨 Bourdieu(1986)는 사회자본을 ‘지속적인 네트워크 혹은 상호 면식이나 인정이 제도화된 관계, 즉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득되는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으로 정의한다. 이는 ‘구성원에게 집합적으로 소유된 자본이라는 후원을 제공하고, 여러 의미에서 그 구성원이 “신뢰할 만하다”고 입증해 주는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Coleman(1990)은 사회자본을 기능적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어떤 단일한 실체(entity)가 아니라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

5) 심지어 사회자본의 구성 요소로 지칭되는 신뢰, 규범, 호혜, 네트워크 등이 통상적인 ‘자본’의 특성을 지니는지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일례로, Hodgson(2014)은 ‘자본’이라 함은, ① 사용 권리의 소유나 고용 가능성, ② 시장가격 형성 가능성, ③ 담보물로의 활용 가능성, ④ 매매 가능성, ⑤ 총계수준의 측정 가능성 등 5가지의 속성을 지녀야 하는데, 사회자본은 이들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이라 부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본 연구는 사회자본의 개념적 엄밀성에 관한 이론적 측면보다는 사회자본의 주요 구성 요소인 사회신뢰와 경제안정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기존 논의에서 사용해 온 ‘사회자본’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6) 사회자본은 그 개념의 포괄성으로 인해 학제 간 연구(interdisciplinarity)의 주요 주제이기도 하지만, 학문 분야별로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의 초점이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은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 정치학은 제도(institutions), 사회학은 문화규범(cultural norms)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Svendsen and Svendsen(2009)은 이들 세 영역을 ‘인문과학의 트로이카’(troika)라고 부르고, 경제학과 정치학은 사회자본의 영향(outcomes)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는 반면, 사회학은 사회자본의 양상(aspects)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으며, 사회자본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공통으로 지닌다고 본다. 첫 번째는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구성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어진 구조에 속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촉진한다’는 것이다.<sup>7)</sup>

그리고 Putnam(1995)은 호혜성에 기초한 집합적(collective) 성격을 보다 강조하고 사회자본의 구성 요소들을 제시한다. 그는 사회자본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네트워크, 규범, 신뢰 등 사회적 삶의 특성들의 집합’(set)으로 정의한다.<sup>8)</sup>

Woolcock(1998)는 기존 논의를 종합하여 사회자본을 ‘사람들의 사회적 연결망에 내재된 정보, 신뢰, 그리고 호혜성의 규범’이라는 다소 일반화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유석춘 · 장미혜(2003)는 물질 자본, 인적 자본, 문화자본과 구분되는 사회자본의 독특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먼저, 사회자본은 개별적으로 체화된 자본이 아닌 ‘관계’ 속에 내재한 자본이라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분석 단위가 개별적이지 않고 개인들 혹은 집단들 간 관계에 맞춰진다. 둘째, 다른 자본과 달리 사회자본은 구성원들 간에 이익을 공유하며, 지속적인 관계의 확인과 상호 인정의 과정을 통해 유지가 가능한 자본이다. 셋째, 사회자본은 물질 자본이나 인적 자본과 달리 수요자와 공급자 간 직접적인 교환이나 계약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구성원들이 사회자본을 사용할수록 증가하는 특성을 지닌다.<sup>9)</sup> 마지막으로, 물질 자본의 교환은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사회자본은 동시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일반화된 호혜성’(generalized reciprocity)에 기초하고 있다.

## 2. 사회자본의 구성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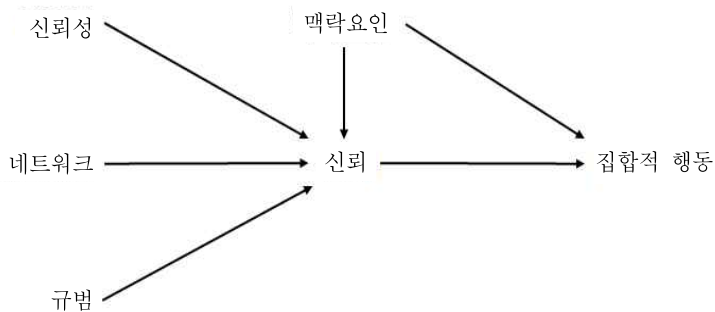
Putnam(1995)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의 구성 요소로서

- 
- 7) Coleman(1988)은 물질 자본, 인적 자본, 사회자본을 구분하고 물질 자본과 인적 자본은 실체적인 데 반해 사회자본은 실체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자본은 물질 자본이나 인적 자본과 같이 생산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강한 신뢰를 가진 조직은 신뢰가 없는 조직에 비해 목표에 대한 성취도가 더 높다는 것이다. 물질 자본이나 인적 자본과 유사하게 사회자본도 다른 자본과 완전히 대체될 수 없으며, ‘특정한 행위에 특화’되어 나타난다고 본다.
- 8) 이 점에서 Putman의 사회자본론은 ‘지역사회 혹은 국가가 가져야 할 사회자본의 이상적 모습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최석현 외, 2012).
- 9) 이런 측면에서 물질 자본과 인적 자본은 시장에서의 ‘경제적 교환’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자본은 ‘사회적 교환’이라 할 수 있다.

사회신뢰(social trust), 일반화된 호혜성의 규범(norm of generalized reciprocity), 사회 네트워크(social network) 등을 제시한다.

먼저 사회신뢰는 사회자본의 구성 요소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회자본의 형태들을 집합적 행동으로 연결되도록 만드는 일종의 매개이다(Torsvik, 2000). Fukuyama(1995)는 ‘신뢰란 공동체가 규칙적이고 정직한 행동에 대해 규칙적인 기대(expectation)를 생성하는 방식을 통해 일련의 도덕적 가치를 공유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신뢰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동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성(trustworthiness)을 기초로 하여 예측이 가능할 때 형성된다. 사회신뢰(혹은 일반화된 신뢰)는 사회적 차원에서 형성된 신뢰로서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도 정직성에 대한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sup>10)</sup> 이런 사회신뢰는 타인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제도 내에 속해 있을 때 증진될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집합적 행동(collective action)이 표면화된다. 특히, 제도적 공정성은 사회신뢰를 축적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하며, 이 측면에서 사회신뢰 축적에서 국가(정부, 정치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신뢰성, 네트워크, 제도와 사회신뢰 간의 관계는 <그림 1>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 사회자본의 형태, 신뢰, 집합적 행동 간 관계



자료: Ostrom and Ahn(2009).

10) 일반화된 신뢰(generalized trust)는 인지적·규범적 측면이 강하여 주로 사회학과 정치학에서 연구주제인 반면, 특수화된 신뢰(particularized trust)는 합리적 측면이 강하여 경제적 분석을 위한 토대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Svendson and Svendson, 2009). 그리고 일반화된 신뢰는 국가 혹은 국제적 수준에서 분석되고 있으며, 특수화된 신뢰는 지역 단위 혹은 개별적 수준에서 분석되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일반화된 호혜성의 규범은 타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보상을 받지 않으면서도 그를 위해 행동하는 것으로서, 또 다른 타인이 미래에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행동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전제로 한다.<sup>11)</sup> 일반화된 호혜성의 규범은 개인의 이익추구를 억제시킴으로써 사회적 갈등의 해소와 사회적 연대를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구성원들을 결속시키거나 타인 혹은 다른 집단을 연결하는 사회자본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개인 혹은 집단의 측면에서 네트워크는 타인 혹은 다른 집단과의 사회적 접촉을 통해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거시적·사회적 측면에서 네트워크는 상호 책임성을 전제로 하여 호혜성의 규범을 견고하게 증대시키고 상호 협력과 소통을 원활하

<표 1> 사회자본의 주요 구성 요소 및 지표

사회자본 구성 요소		주요 지표
신뢰	사회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에 대한 신뢰성</li> <li>· 타인에 대한 공정성</li> <li>· 사회에 대한 봉사성</li> </ul>
	제도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회에 대한 신뢰도</li> <li>· 정부에 대한 신뢰도</li> <li>· 기업에 대한 신뢰도</li> <li>· 종교단체에 대한 신뢰도</li> <li>·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도</li> <li>· 사회조직에 대한 신뢰도</li> </ul>
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규범 인지 정도</li> <li>· 공무원 및 정치인의 부패도</li> <li>·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는 정도</li> <li>· 범죄율 및 지역사회 안전 체감도</li> </ul>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웃과의 친밀성</li> <li>· 지역사회에서의 의사소통</li> <li>· 지역사회에 대한 협조성</li> <li>· 친교의 다양성</li> <li>·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도</li> <li>· 단체로부터의 지원 정도</li> <li>· 지역사회단체 구성원의 다양성</li> </ul>

자료: 고경훈 외(2012)에서 재구성.

11) Putnam(1993)은 사회체계 내에서 합의의 수준을 의미하는 규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혜성이며, 일반화된 호혜성의 규범은 사회자본의 생산적 요소라고 본다.

게 함으로써 신뢰성에 관한 정보의 확산에 기여한다.<sup>12)</sup> 사회 네트워크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문제의 해결 등 공동의 목표를 위해 행동하는 사회 구성원들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회신뢰, 일반화된 호혜성의 규범, 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주요 지표들은 <표 1>로 요약할 수 있다(고경훈 외, 2012).

### III. 사회자본과 경제안정 간 관계 검토

Putnam(1993)이 사회자본의 개념을 통해 이탈리아의 남부지역(칼라브리아, 시실리 등)과 북부지역(투스카니, 에밀리아 로마냐 등) 사이에 경제발전의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한 이후, 사회자본(특히, 신뢰)과 경제발전 혹은 경제성장 간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sup>13)</sup> 하지만 사회자본과 경제안정성 간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미진한 상황이다. 이 절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진 사회자본의 경제안정화 효과에 대한 논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회자본의 핵심 구성 요소인 신뢰성과 관련하여 경제안정화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개인적 신뢰는 동감 혹은 다른 경제 주체와 공동으로 행동하는 개인적 행위로서 고려될 수 있다. 이는 상호작용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불확실성을 낮춰 보다 현실에 부합한 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이끌어 경제변동성의 축소에 기여한다(Glaeser *et al.*, 2000). 더욱이 사회신뢰가 높은 경우 경제적 외부충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취약계층이 신뢰를 담보로 금융을 보다 용이하게 활용(마이크로크레디트 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게 된다.

다음으로, 사회자본이 경제변동성의 축소에 기여하는 경로는 사회 제도적 측면과 관련이 있다. 사회신뢰가 높은 사회일수록 제도가 잘 갖춰져 있고 적절한 경제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안정에 도움이 된다. 즉, 사회신뢰가 제도적으로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강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경제정책의 변화가 완만하게 나타나고, 이는 거시경제적 변동성을 축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Knack and Keefer(1997)는 신뢰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보다 적절한 제도가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Acemoglu *et al.*(2003)의 연구는 제도가 잘 정비된 국가일수록

12) 이 측면에서 네트워크는 신뢰를 형성하고 확대시키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13) 사회자본과 경제성장 간의 실증분석 연구를 비교한 것으로는 Bjørnskov(2009)를 참고하라.



거시경제 변동성이 낮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사회자본은 사회적 통합도를 높여 사회안정에 기여하고, 이는 다시 경제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높은 신뢰 국가에서는 시민사회의 갈등, 소요, 정치 불안 등이 적게 발생한다. 내적 갈등의 심화가 경제적 충격의 주요 원천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안정은 경제변동성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sup>14)</sup> 그리고 사회자본은 갑작스런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때 지역공동체가 이 충격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험을 회피하거나 충격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다(Bartley, 2008). 즉, 사회자본은 정보의 공유를 통해 지역경제가 직면한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도록 돕고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sup>15)</sup> 이는 외부 자원의 지원을 받는데 필요한 접촉면을 넓히고 자원 이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혹은 공동체경제의 회복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자본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경제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은 공공성을 추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들 간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다른 집단과 활발한 교류를 가지며 수평적 네트워크를 지니는 교량형 연결망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자본은 사회적 경제조직이 추구하는 공공적 가치를 이행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Coleman, 1988).<sup>16)</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자본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Sangnier(2013)는 1970~2008년 기간 동안 56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높은 일반신뢰를 가진 국가에서 1인당 실질 GDP성장률의 표준편차가 낮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sup>17)</sup>

14) 사회통합도의 증대는 소득불평등의 완화에 기여하고, 이는 다시 경제변동성의 축소에 기여한다.

15) Aldrich(2012)는 과거 일본 대지진, 인도 쓰나미, 미국 카트리나 허리케인 등의 사례분석을 통해 자연재앙으로부터 지역사회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 사회경제적 조건, 피해범위, 원조 규모 등 다른 요소들에 비해 사회자본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16) 한편, 최석현 외(2012)는 사회적 경제가 사회자본의 축적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파악한다. 사회적 기업은 '다수의 목적'과 '다수의 자원동원'이라는 조직적 특성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의 자원 확보에 유리한 네트워크를 구조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이다. 서미영 · 임재영(2015)은 유럽 29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 사회적 경제가 사회자본의 형성에 기여하고 사회자본이 다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17) 그러나 미국만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사회자본이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문은 고용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sup>18)</sup> 먼저, 사회자본의 주요 구성 요소인 네트워크는 구직자와 구인자가 정보를 용이하게 취득하여 고용의 기회를 넓히도록 돕는다. 즉, 일자리에 대한 정보와 구직자에 대한 정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는 구인-구직 미스매치의 문제 완화에 기여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증대시킨다(Bentolila *et al.*, 2003).<sup>19)</sup>

또한 기업 내부의 상호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은 불황시기에 해고보다는 고등분담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여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sup>20)</sup> 특히, 사회자본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사회적 기업의 경우 고용 유지를 통해 지역경제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sup>21)</sup>

한편, 사회자본의 네트워크 유형은 결속형(bonding),<sup>22)</sup> 교량형(bridging),<sup>23)</sup> 연계형(linking)<sup>24)</sup>으로 분류(Putnam, 2000; Szreter, 2002; Szreter and Woolcock,

18) 고용 취약성과 고용 불안은 사회적 통합과 경제 주체들의 행복을 저해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고 사회 전반에 대한 불만족과 사회적 불신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자본의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19) Aguilera(2003)은 멕시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에서 인적 자본의 증대는 보다 좋은 고용조건을 제시하는 일자리를 추구하도록 촉진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사회자본의 증대는 상호 관계를 증진시켜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20) 역으로, 불황기에 고용을 축소하고 임시직을 늘리는 경우 기업가와 노동자 간 신뢰가 깨져 협력을 통한 성과 개선의 노력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Leana and van Buren III, 1999).

21) 대표적인 사례는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스페인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일시적 유급휴직을 하도록 유도한 후 이들을 재교육시켜 관계회사로 모두 복직시켰다(한겨레신문, “이익극대화 아니라 고용 확대 - 해고 없는 몬드라곤이 ‘교과서’”, 2012. 6. 28).

22) 결속형 사회자본은 가족, 친한 친구관계 등 폐쇄적이고 밀접한 상호 관계에 기초한 동질적 사람들의 네트워크이다. 이런 의미에서 결속형 사회자본은 구성원들의 두터운 신뢰(thick trust)를 기반으로 한다. 이 유형의 사회자본은 주로 정보 및 경험의 취득과 연관되어 있으며, 계산적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 신뢰’(rational trust)로 불린다(Patulny, 2004).

23) 교량형 사회자본은 사회적 상호 관계에 기초한 보다 포용적이고 개방된 네트워크로서, ‘일반화된 신뢰’(generalized trust)로 나타난다. 일반화된 신뢰는 규범적인 특성을 지니며, 낯선 사람들에 대한 도덕 및 신뢰와 관련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교량형 사회자본은 얇은 신뢰(thin trust)를 기반으로 한다.

24) 연계형 사회자본은 시민, 정부, 거버넌스 제도 등에 의해 형성된 관계에 기초한 네트워크이다. 교량형 사회자본과 연계형 사회자본의 가장 큰 차이는 교량형이 수평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반면, 연계형은 서로 다른 공식적·제도적 권위를 갖는 조직에 속한 사람들 간 관계에서 형성된다는 점이다. 연계형 사회자본은 학교 수업, 담당의 진찰 등 지속적인 대면관계를 통해 공공 혹은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런 측면에서 권력의 수직적 차이를 전제로 한다.

2004)하는데, 각 유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Sabatini(2009)는 결속형 사회자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고용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결속형 사회자본이 자신의 친지들과 절친한 그룹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주요 수단이 되거나 고용변동성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반면 그는 교량형 사회자본은 정보의 확산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네트워크의 결속력이 약해 개인의 직접적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거나 고용변동성을 크게 하는 요인일 수 있다고 본다. Sabatini(2009)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결속형 사회자본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교량형 사회자본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연계형 사회자본은 조직이나 제도 등을 통해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개별적 커뮤니티를 넘어서 아이디어, 정보, 자원의 활용을 촉진시키고 이는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Knack and Keefer(1997)는 자발적 조직들 간 협력과 연대가 경제성장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Sabatini(2009)도 연계형 사회자본이 고용안정성에 기여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이는 Putnam이 강조한 자발적 조직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 IV. 사회자본의 경제안정화 효과 실증분석

이 절에서는 사회자본이 경제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실증 연구(Sangnier, 2013)와 달리 일반화된 신뢰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신뢰 지표를 설명변수로서 포함하고 1인당 GDP성장률의 표준편차 및 고용률의 표준편차를 경제안정성의 측정 지표로 사용한다. 그리고 패널회귀분석과 패널분위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함으로써 실증분석의 강건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전체 182개 국가를 분석 대상으로 하지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신뢰 지표에 따라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표본 국가의 수가 다르다.

##### 1. 분석방법론

이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이 경제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패널

회귀분석(panel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도록 한다. 패널회귀분석은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 임의효과 모형(random effect model), 그리고 Canay(2011)의 분위회귀 모형(quantile regression model)을 적용한다.

패널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고정효과 및 임의효과 모형 이외에 Canay(2011)의 분위추정 모형을 사용한 이유는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인 성장률, 고용률 표준편차의 수준이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즉, 표준편차의 수준에 대한 평균적인 효과를 추정하는 고정효과 및 임의효과 모형으로는 종속변수의 분포에 대한 정보를 완전하게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기존의 고정효과 및 임의효과 모형은 OLS 추정기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 분석기법이다. 하지만 종속변수인 표준편차의 수준이 국가별로 편차가 상당히 큰 경우에는 극단치(outlier)의 존재로 인해 종속변수의 수준별로 설명변수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Canay(2011)의 패널분위추정 기법을 이용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시도한다.

고정효과와 임의효과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고정효과 분위회귀(quantile regression)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분위회귀 모형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X$ 를 연속확률변수인 소득 수준이라 하자.

$$F(x) = P(X \leq x). \quad (1)$$

이때 식 (1)은 소득에 대한 주어진 분포  $F$  하에서 소득 값이  $x$ 보다 작은 확률을 나타낸다. 그러면 확률변수  $X$ , 즉 소득의  $\tau(0 \leq \tau \leq 1)$ 번째 분위수는 식 (2)와 같이 정의된다.

$$Q(\tau) = F^{-1}(\tau) = \inf \{x : F(x) \geq \tau\}. \quad (2)$$

만약  $\tau = 0.5$ 라 하면,  $Q(0.5)$ 는 중위수(median)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을 나타낸다. 통상 분위 값은 다음과 같은 최적화 문제에 대한 해(solution)를 찾음으로써 구할 수 있다. 먼저 식 (3)과 같이 체크함수(check function)를 정의하자.

$$\rho_\tau(u) = u \times (\tau - I(u < 0)) = \begin{cases} \tau u & \text{if } u > 0 \\ (\tau - 1)u & \text{if } u \leq 0 \end{cases} \quad (3)$$

이제 체크함수  $\rho_\tau(X - m)$ 의 기댓값을  $m$ 에 대해 최소화하여 주면 최적해인 추정량  $\hat{m}(\tau)$ 을 얻을 수 있고, 이 값은 위에서 정의된  $Q(\tau)$ 를 최소화하는 값이 된다.

통상 확률변수  $X$ 에 대한 확률표본  $\{x_1, \dots, x_n\}$ 을 가지고  $\tau$ 번째 분위에 대한 추정량은 다음과 같이 표본 분위에 대한 최적화 문제를 풀어서 구할 수 있다. 즉, 분위회귀 추정량(quantile regression estimator)은 식 (4)에 제시된 최적화 문제의 해로 주어진다.

$$\hat{Q}(\tau) = \operatorname{argmin}_{m \in \mathbb{R}} \sum_{t=1}^T \rho_\tau(y_t - m). \quad (4)$$

식 (4)는 식 (5)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operatorname{Min} \sum_{t \in \{t: y_t - m > 0\}} \tau |y_t - m| + \sum_{t \in \{t: y_t - m \leq 0\}} (1 - \tau) |y_t - m|. \quad (5)$$

식 (5)에 의하면 전체 중에서  $\tau$ 의 비율로  $y_t$ 가  $m$ 보다 크고  $(1 - \tau)$ 의 비율로  $y_t$ 가  $m$ 보다 작게 된다. 따라서  $m$ 이 바로  $\tau$  분위 값에 해당한다.

분위회귀 추정에서는 식 (4)와 유사한 방식으로 회귀방정식을 나타내는 값을 이용하여 최적화 문제를 설정한 후 식 (6)과 같은 최적화 문제에 대한 최적해 값으로 분위회귀 추정량을 정의한다.

$$\hat{\beta}(\tau) = \operatorname{argmin}_{\theta \in \mathbb{R}^{k+m}} \sum_{t=1}^T \rho_\tau(y_t - \beta' z_t). \quad (6)$$

여기서  $Y$ 는 종속변수,  $X$ 는 설명변수로서 회귀분석과 유사한 형태를 따른다. 앞에서와 유사하게 식 (6)은 식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즉, 분위회귀 추정량  $\hat{\beta}(\tau)$ 는 다음을 만족한다.

$$\text{Min} \sum_{t \in \{t: y_t - \beta' z_t > 0\}} \tau |y_t - \beta' z_t| + \sum_{t \in \{t: y_t - \beta' z_t \leq 0\}} (1 - \tau) |y_t - \beta' z_t|. \quad (7)$$

이 경우 설명변수  $X = x$ 를 조건부로 하는 종속변수  $Y$ 의  $\tau$ 분위 추정량은  $Q_Y(\tau | X = x) = x_t' \beta(\tau)$ 이다.

지금까지 횡단면 자료에 대한 분위회귀 추정량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패널 자료에 대한 분위회귀 추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패널분석에서 많이 사용되는 고정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평균제거(demeaning) 과정이 요구되는데, 통상 분위회귀 모형에서는 이 과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분위회귀 모형의 경우 기본적으로 비선형회귀 모형에 해당하고 평균제거는 선형 모형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으므로 패널 자료에서 분위회귀에 대한 고정효과를 추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anay(2011)는 패널 자료에 대한 고정효과 분위회귀분석이 가능한 2단계 추정기법을 제시했다.

Canay(2011)가 제안한 패널 자료에 대한 고정효과 분위회귀분석은 다음과 같다. 먼저 패널분위회귀 모형은 식 (8)로 나타낼 수 있다.

$$y_{it} = x_{it}' \beta(\tau) + \alpha_i + u_{it}. \quad (8)$$

식 (8)에 대한 분위회귀 추정량은 다음과 같이 2단계 추정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첫째,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한다. 이때 추정량을  $\hat{\beta}_m$ 이라 하고, 다음을 정의하자.

$$\hat{\alpha}_i = E[y_{it} - x_{it}' \hat{\beta}(\tau)]. \quad (9)$$

둘째,  $\hat{y}_{it} \equiv y_{it} - \hat{\alpha}_i$ 를 정의하자. 그러면 2단계 고정효과 분위추정량은 식 (10)과 같이 구해진다.

$$\hat{\beta}(\tau) = \underset{\theta \in \mathbb{R}^{k+m}}{\text{argmin}} \sum_{t=1}^T \rho_\tau(\hat{y}_t - \beta' x_t). \quad (10)$$

## 2. 자료의 구성

사회자본과 경제안정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종속변수는 1인당 GDP성장률의 표준편차(grsd)<sup>25)</sup>와 고용률의 표준편차(ersd)이다. 사회자본 변수로는 일반신뢰도(trust), 정부신뢰도(trustg), 의회신뢰도(trustc), 공정성(fair), 부패지수(corup) 등을 사용했다. 그리고 1인당 GDP성장률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설명변수로는 정부지출 비중(gov), 개방도(open), 정부부채 비율(debt) 등을 포함했다. 정부지출은 경기역행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으로 인해 경기변동성 축소에 기여하고,<sup>26)</sup> 무역개방도와 정부부채 규모는 외부충격에 대한 국내 경제의 취약성을 높여 경기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일 것으로 판단된다(Giovanni and Levchenko, 2009; Sangnier, 2013). 아울러 고용률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설명변수로는 경제성장률(gravg), 정부지출 비중(gov), 임금상승률의 표준편차(wgrsd) 등을 고려했다.

일반신뢰도, 정부신뢰도, 의회신뢰도, 공정성은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WVS)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sup>27)</sup>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데이터를 사용했다. 일반신뢰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Most people can be trusted)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다. 그리고 정부신뢰도와 의회신뢰도는 국가 정부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완전 신뢰’(A great deal)와 ‘다소 신뢰’(Quite a lot) 응답률의 합계이다. 공정성과 부패지수는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평균값을 그대로 사용한다.

1인당 GDP성장률, 경제성장률, 고용률, 정부지출 비중, 개방도 자료는 세계은행 ‘WDI Database Archives(beta)’(2017년 7월 기준)의 데이터를 이용했다. 여기서 (1인당) 경제성장률은 실질 (1인당) GDP증가율이며, 고용률은 국제노동기구(ILO) 추정 방식의 15세 이상 고용률, 개방도는 GDP 대비 총수출액과 총수입액

25) 경제변동성을 측정하는 변수로서 ‘GDP성장률의 표준편차’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1인당 GDP성장률의 표준편차’를 변수로 사용한 실증분석 결과(제IV절 제3항)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했다.

26) 기존 실증 연구에서 정부지출의 경기안정화 효과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례로, Sangnier(2013)는 1인당 성장률 표준편차에 대한 정부지출 비중의 추정계수가 음(-)의 값으로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인다. 한편, 콰노션(2013)은 정부지출 비중의 변동성이 오히려 경기변동성을 크게 하는 요인이라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27) 여기서는 부패지수가 높을수록 청렴한 국가를 의미한다.

합계의 비중, 정부지출 비중은 GDP 대비 정부의 최종소비지출 비중이다. 한편, 정부부채 비율은 GDP 대비 정부의 총부채 비율로서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2017년 10월 기준)의 데이터이다. 임금상승률은 월평균 근로자 실질임금의 연간 증가율로서 국제노동기구 ‘ILO stat’의 데이터이다.

분석기간은 세계가치조사(WVS)의 경우 공정성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제4차(2000~2004년), 제5차(2005~2009년), 제6차(2010~2014년) 조사를 대상으로 하고, 공정성은 제5차(2005~2009년), 제6차(2010~2014년) 조사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부패지수 및 경제변수는 5년 단위로 발표되는 WVS 데이터와 일치시키기 위해 2000~2014년 동안의 연간 데이터를 세계가치조사 기간에 대응하여 5년 평균치를 적용했다. 그리고 1인당 GDP성장률의 표준편차, 고용률의 표준편차, 임금상승률의 표준편차는 세계가치조사 기간에 대응하는 5년 동안의 표준편차 값이다.

실증분석에 사용한 변수의 기초통계량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분석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명		표본수	평균	최대	최소	분산
종속 변수	1인당 GDP성장률 표준편차(grsd)	611	3.0	79.8	0.1	18.4
	고용률 표준편차(ersd)	525	0.8	4.4	0.1	0.5
사회 자본 변수	일반신뢰도(trust)	154	26.0	74.2	3.2	263.4
	정부신뢰도(trustg)	149	47.5	98.3	8.0	383.0
	의회신뢰도(trustc)	148	40.9	98.8	6.2	470.2
	공정성(fair)	108	5.7	8.0	3.8	0.7
	부패지수(corup)	501	4.1	9.8	1.0	4.4
기타 통제 변수	정부지출 비중(gov)	514	16.5	123.9	4.6	76.9
	개방도(open)	530	93.5	594.7	0.2	3,340.1
	정부부채 비율(debt)	523	56.8	668.7	0.5	2,853.1
	경제성장률(gravg)	544	3.9	30.6	-28.5	13.2
	임금상승률 표준편차(wgrsd)	342	3.4	26.9	0.1	11.1

### 3. 실증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일반신뢰도, 정부신뢰도, 의회신뢰도, 공정성, 부패지수 등의 사회자본 지표가 1인당 GDP성장률 표준편차 및 고용률 표준편차로 측정된 경제변



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효과 모형, 임의효과 모형, 분위회귀 모형 등을 통해 실증분석을 진행한다.<sup>28)</sup> 분위회귀 모형의 추정 결과에서 0.25(1분위)는 1인당 GDP성장률의 표준편차 및 고용률의 표준편차가 높은 순서로 25%, 0.50은 50%, 0.75는 75%에 각각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게 됨을 의미한다. 실증 분석에서 추정계수 값의 부호는 사회자본 변수의 경우 음(-)의 부호, 나머지 변수의 경우 양(+)의 부호로 예상된다.

### (1) 일반신뢰도

일반신뢰도는 고정효과 또는 임의효과 모형에서 1인당 GDP성장률의 표준편차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위회귀분석 결과의 경우에는 모든 분위수(0.25, 0.50, 0.75)에서 일반신뢰도의 부호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나 높은 일반신뢰도가 1인당 GDP성장률의 변동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반대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 결과는 장기 데이터(1970~2008년)를 사용한 Sangnier(2013)의 실증분석과는 상반된 결과이다.<sup>29)</sup>

다음으로, 고용률의 표준편차에 대해 일반신뢰도의 영향을 추정한 결과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임의효과 모형에서는 5% 유의수준에서 일반신뢰도의 상승이 고용률의 표준편차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분위회귀 모형의 경우에는 모든 분위수에서 일반신뢰도가 상승하면 고용률의 표준편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일반신뢰도 상승의 경우 1인당 GDP성장률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고용률의 변동성을 낮추는 데에는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8) OECD 국가와 비OECD 국가로 표본을 나누어 분석한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OECD 국가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29) WVS의 제2차(1990~1994년)와 제3차(1995~1999년) 조사를 포함하여 실증분석한 경우에도 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결과가 도출됨을 확인했다.

&lt;표 3&gt; 경제변동성에 대한 일반신뢰도의 영향 추정 결과: 패널회귀

변수명	1인당 GDP성장률 표준편차		고용률 표준편차	
	고정효과	임의효과	고정효과	임의효과
trust	0.0177 (0.0312)	-0.0059 (0.0135)	-0.0083 (0.0097)	-0.0071** (0.0035)
gov	0.0602 (0.2159)	-0.0216 (0.0490)	-	-
open	0.0352* (0.0215)	0.0076** (0.0037)	-	-
debt	0.0589*** (0.0088)	0.0330** (0.0054)	-	-
gravg	-	-	-0.0238 (0.0613)	-0.0068 (0.0246)
grsd	-	-	-0.1174 (0.0892)	-0.0299 (0.0391)
wgrsd	-	-	0.0283 (0.0695)	0.0186 (0.0274)
_cons	-5.6981 (3.8924)	0.1953 (0.9157)	1.1448 (0.3692)	0.8809 (0.1863)
$R^2$	0.1840	0.2277	0.0731	0.1093
표본수	148		125	
Hausman 검정	148.7***		0.8079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하며, \*\*\*은 1%, \*\*은 5%, \*은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lt;표 4&gt; 경제변동성에 대한 일반신뢰도의 영향 추정 결과: 패널분위회귀

변수명	1인당 GDP성장률 표준편차			고용률 표준편차		
	0.25	0.50	0.75	0.25	0.50	0.75
trust	0.0170*** (0.0061)	0.0177*** (0.0033)	0.0175* (0.0094)	-0.0062*** (0.0020)	-0.0083*** (0.0008)	-0.0095*** (0.0012)
gov	0.1006*** (0.0279)	0.0602*** (0.0125)	0.0611 (0.0382)	-	-	-
open	0.0326*** (0.0036)	0.0352*** (0.0014)	0.0350*** (0.0033)	-	-	-
debt	0.0503*** (0.0051)	0.0589*** (0.0028)	0.0590*** (0.0073)	-	-	-
gravg	-	-	-	-0.0265 (0.0183)	-0.0238*** (0.0062)	-0.0158 (0.0133)
grsd	-	-	-	-0.1228*** (0.0177)	-0.1174*** (0.0045)	-0.1058*** (0.0157)
wgrsd	-	-	-	0.0484*** (0.0115)	0.0283*** (0.0054)	0.0138* (0.0073)
_cons	-6.0952*** (0.5520)	-5.6981*** (0.2366)	-4.9063*** (0.6911)	0.9723*** (0.1473)	1.1448*** (0.0472)	1.2779*** (0.0833)
$R^2$	0.6032	0.6727	0.6889	0.3124	0.3589	0.2921
표본수	148			125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하며, \*\*\*은 1%, \*\*은 5%, \*은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2) 정부신뢰도

1인당 GDP성장률 표준편차에 대한 정부신뢰도의 효과는 고정효과 또는 임의 효과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위회귀 모형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기타 통제변수의 경우에도 대체로 예상되는 부호를 갖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였다.

고용률 표준편차에 대한 정부신뢰도의 영향은 고정효과 및 임의효과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분위회귀 모형의 경우에도 모든 분위에서 정부신뢰도가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지니며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정부의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대체적으로 경제의 변동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5> 경제변동성에 대한 정부신뢰도의 영향 추정 결과: 패널회귀

변수명	1인당 GDP성장률 표준편차		고용률 표준편차	
	고정효과	임의효과	고정효과	임의효과
trustg	-0.0290 (0.0305)	-0.0173 (0.0117)	-0.0214** (0.0099)	-0.0104** (0.0033)
gov	0.1515 (0.2262)	-0.0534 (0.0529)	-	-
open	0.0458** (0.0222)	0.0090** (0.0039)	-	-
debt	0.0561*** (0.0093)	0.0312*** (0.0054)	-	-
gravg	-	-	0.0352 (0.0677)	0.0490* (0.0287)
grsd	-	-	-0.1232 (0.0874)	-0.0233 (0.0392)
wgrsd	-	-	0.0343 (0.0684)	0.0129 (0.0280)
_cons	-6.0806 (4.1014)	1.3309 (1.2353)	1.7122*** (0.4686)	0.9938*** (0.1800)
$R^2$	0.1814	0.2456	0.1102	0.1561
표본수	143		122	
Hausman 검정	162.6***		0.5574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하며, \*\*\*은 1%, \*\*은 5%, \*은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lt;표 6&gt; 경제변동성에 대한 정부신뢰도의 영향 추정 결과: 패널분위회귀

변수명	1인당 GDP성장률 표준편차			고용률 표준편차		
	0.25	0.50	0.75	0.25	0.50	0.75
trustg	-0.0269*** (0.0042)	-0.0290*** (0.0034)	-0.0399*** (0.0074)	-0.0192*** (0.0019)	-0.0214*** (0.0005)	-0.0214*** (0.0029)
gov	0.1720*** (0.0259)	0.1515*** (0.0151)	0.1416*** (0.0372)	-	-	-
open	0.0423*** (0.0035)	0.0458*** (0.0017)	0.0493*** (0.0046)	-	-	-
debt	0.0475*** (0.0052)	0.0561*** (0.0030)	0.0582*** (0.0074)	-	-	-
gravg	-	-	-	0.0193 (0.0190)	0.0352*** (0.0046)	0.0543** (0.0272)
grsd	-	-	-	-0.1248*** (0.0293)	-0.1232*** (0.0056)	-0.1131*** (0.0297)
wgrsd	-	-	-	0.0376*** (0.0140)	0.0343*** (0.0041)	0.0230 (0.0230)
_cons	-6.1932*** (0.6678)	-6.0806*** (0.3836)	-5.0908*** (0.9062)	1.6023*** (0.1561)	1.7122*** (0.0308)	1.7821*** (0.1269)
R <sup>2</sup>	0.6480	0.7124	0.7179	0.5047	0.5520	0.4469
표본수	143			122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하며, \*\*\*은 1%, \*\*은 5%, \*은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 (3) 의회신뢰도

1인당 GDP성장률 표준편차에 대한 의회신뢰도의 영향은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으나, 임의효과 모형에서는 유의한 음(-)의 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분위회귀 모형의 경우에는 모든 분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제변수들의 부호도 대체적으로 예상과 일치하고 통계적인 유의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률의 표준편차에 대한 의회신뢰도의 효과는, 임의효과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발견했으나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분위회귀 모형의 경우에는 모든 분위수에서 의회신뢰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경제변동성에 대한 의회신뢰도의 영향 추정 결과: 패널회귀

변수명	1인당 GDP성장률 표준편차		고용률 표준편차	
	고정효과	임의효과	고정효과	임의효과
trustc	-0.0242 (0.0181)	-0.0191** (0.0077)	-0.0083 (0.0086)	-0.0071** (0.0030)
gov	0.1939 (0.1510)	-0.0179 (0.0392)	-	-
open	0.0298** (0.0152)	0.0059** (0.0030)	-	-
debt	0.0030 (0.0115)	-0.0015 (0.0053)	-	-
gravg	-	-	-0.0042 (0.0674)	0.0329 (0.0278)
grsd	-	-	-0.1191 (0.0894)	-0.0216 (0.0398)
wgrsd	-	-	0.0256 (0.0704)	0.0143 (0.0284)
_cons	-3.1799 (2.7776)	2.5069*** (0.8513)	1.1922*** (0.4027)	0.8323*** (0.1658)
$R^2$	0.0523	0.1247	0.0718	0.1191
표본수	143		123	
Hausman 검정	17.49***		0.7618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하며, \*\*\*은 1%, \*\*은 5%, \*은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표 8> 경제변동성에 대한 의회신뢰도의 영향 추정 결과: 패널분위회귀

변수명	1인당 GDP성장률 표준편차			고용률 표준편차		
	0.25	0.50	0.75	0.25	0.50	0.75
trustc	-0.0210*** (0.0050)	-0.0242*** (0.0025)	-0.0273*** (0.0040)	-0.0066*** (0.0017)	-0.0083*** (0.0006)	-0.0076*** (0.0018)
gov	0.2050*** (0.0224)	0.1939*** (0.0118)	0.1877*** (0.0172)	-	-	-
open	0.0279*** (0.0009)	0.0298*** (0.0013)	0.0309*** (0.0020)	-	-	-
debt	0.0042** (0.0017)	0.0030*** (0.0008)	0.0021 (0.0028)	-	-	-
gravg	-	-	-	-0.0163 (0.0171)	-0.0042 (0.0073)	-0.0010 (0.0193)
grsd	-	-	-	-0.1149*** (0.0273)	-0.1191*** (0.0109)	-0.1172*** (0.0212)
wgrsd	-	-	-	0.0311* (0.0175)	0.0256*** (0.0057)	0.0200 (0.0193)
_cons	-3.6399*** (0.5713)	-3.1799*** (0.2598)	-2.4780*** (0.3616)	1.0964*** (0.1068)	1.1922*** (0.0430)	1.2877*** (0.1008)
$R^2$	0.6225	0.6864	0.6772	0.4538	0.3519	0.3848
표본수	143			123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하며, \*\*\*은 1%, \*\*은 5%, \*은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 (4) 공정성

1인당 GDP성장률 표준편차에 대한 공정성의 영향은 임의효과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부호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정효과 모형과 분위회귀 모형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부호를 갖는 결과를 보였다.<sup>30)</sup>

&lt;표 9&gt; 경제변동성에 대한 공정성의 영향 추정 결과: 패널회귀

변수명	1인당 GDP성장률 표준편차		고용률 표준편차	
	고정효과	임의효과	고정효과	임의효과
fair	0.2372 (0.5965)	-0.3889** (0.1729)	0.2152 (0.3145)	-0.1861*** (0.0716)
gravg	-0.0729 (0.1226)	0.0468 (0.0580)	-0.0131 (0.0519)	0.0071 (0.0241)
gov	0.0719 (0.2664)	0.1183*** (0.0349)	-	-
open	-0.0136 (0.0195)	0.0062*** (0.0022)	-	-
debt	-0.0477*** (0.0164)	-0.0044 (0.0044)	-	-
wgrsd	0.6978*** (0.1837)	0.2952*** (0.0612)	-0.0055 (0.0649)	0.0239 (0.0272)
grsd	-	-	-0.0697 (0.0833)	-0.0103 (0.0442)
_cons	1.5581 (4.0343)	0.9202 (1.2551)	-0.3782 (1.8576)	1.6786 (0.4415)
$R^2$	0.1375	0.4783	0.0102	0.0978
표본수	90		91	
Hausman 검정	19.78***		0.6571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하며, \*\*\*은 1%, \*\*은 5%, \*은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30) 이처럼 임의효과 모형과 고정효과 모형의 결과가 상반된 부호를 갖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Hausman 검정의 유의성을 확인함으로써 추정 결과를 판별한다. Hausman 검정 결과가 유의한 경우 임의효과 모형의 추정 결과가 지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유의하지 않은 경우 고정효과 모형의 추정 결과가 지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용률의 표준편차에 대해 공정성의 효과는 고정효과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임의효과 모형에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분위회귀 모형의 경우에는 모든 분위수에서 유의하게 양(+)의 값으로 나타나 기대와는 반대방향의 영향이 존재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회 전체의 공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결속형 사회자본이 고용의 확대와 안정에는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주장(Sabatini, 2009)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제공한다.

<표 10> 경제변동성에 대한 공정성의 영향 추정 결과: 패널분위회귀

변수명	1인당 GDP성장률 표준편차			고용률 표준편차		
	0.25	0.50	0.75	0.25	0.50	0.75
fair	0.2364*** (0.0788)	0.2372*** (0.0292)	0.2434*** (0.0756)	0.4145*** (0.0610)	0.4197*** (0.0153)	0.3962*** (0.0601)
gravg	-0.0517** (0.0201)	-0.0729*** (0.0117)	-0.1016*** (0.0192)	-0.0423*** (0.0159)	-0.0550*** (0.0051)	-0.0470*** (0.0150)
gov	0.0601*** (0.0175)	0.0719*** (0.0076)	0.0862*** (0.0136)	-	-	-
open	-0.0135*** (0.0016)	-0.0136*** (0.0008)	-0.0137*** (0.0007)	-	-	-
debt	-0.0486*** (0.0034)	-0.0477*** (0.0020)	-0.0458*** (0.0024)	-	-	-
wgrsd	0.6938*** (0.0471)	0.6978*** (0.0130)	0.7177*** (0.0237)	0.0010 (0.0210)	-0.0052 (0.0041)	-0.0159 (0.0169)
grsd	-	-	-	-0.0970*** (0.0341)	-0.0876*** (0.0088)	-0.0719*** (0.0176)
_cons	1.5805*** (0.5829)	1.5581*** (0.2118)	1.5119*** (0.5232)	-1.4593*** (0.3820)	-1.3959*** (0.0914)	-1.2004*** (0.3961)
$R^2$	0.8459	0.8582	0.8470	0.4944	0.5633	0.4778
표본수	90			91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하며, \*\*\*은 1%, \*\*은 5%, \*은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 (5) 부패도

부패도가 1인당 GDP성장률 표준편차에 미치는 영향은 임의효과 모형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정효과 모형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양(+)<sup>1</sup>의 값을 보였다. 한편, 분위회귀 모형의 경우에는 모든 분위수에서 유의한 양(+)<sup>1</sup>의 효과를 보여 기대하는 것과는 반대방향의 부호가 나타났다.

부패도가 고용률의 표준편차에 미치는 영향은 고정효과 모형에서 유의한 음(-)<sup>1</sup>의 값을 나타냈으나, 임의효과 모형에서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분위회귀 모형에서는 모든 분위수에서 유의하게 음(-)<sup>1</sup>의 값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1> 경제변동성에 대한 부패도의 영향 추정 결과: 패널회귀

변수명	1인당 GDP성장률 표준편차		고용률 표준편차	
	고정효과	임의효과	고정효과	임의효과
corup	0.2246 (0.2733)	-0.1980** (0.0785)	-0.1677** (0.0875)	-0.0075 (0.0200)
gov	-0.0410 (0.0557)	0.0029 (0.0272)	-	-
open	0.0023 (0.0083)	0.0057** (0.0030)	-	-
debt	0.0169*** (0.0044)	0.0087*** (0.0030)	-	-
gravg	-	-	-0.0349** (0.0184)	-0.0209* (0.0129)
grsd	-	-	0.0124 (0.0281)	0.0382* (0.0205)
wgrsd	-	-	0.0252 (0.0162)	0.0202* (0.0116)
_cons	0.7061 (1.5900)	1.9629*** (0.5315)	1.5645*** (0.4317)	0.7432*** (0.1435)
$R^2$	0.0134	0.0743	0.0105	0.0472
표본수	467		336	
	12.20***		0.1739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하며, \*\*\*은 1%, \*\*은 5%, \*은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lt;표 12&gt; 경제변동성에 대한 부패도의 영향 추정 결과: 패널분위회귀

변수명	1인당 GDP성장률 표준편차			고용률 표준편차		
	0.25	0.50	0.75	0.25	0.50	0.75
corup	0.3033*** (0.0230)	0.2469*** (0.0226)	0.1583*** (0.0222)	-0.1663*** (0.0137)	-0.1512*** (0.0105)	-0.1648*** (0.0145)
gov	-0.0467*** (0.0124)	-0.0460*** (0.0115)	-0.0285*** (0.0109)	-	-	-
open	0.0007 (0.0005)	0.0020* (0.0012)	0.0038*** (0.0009)	-	-	-
debt	0.0139*** (0.0018)	0.0163*** (0.0017)	0.0146*** (0.0015)	-	-	-
gravg	-	-	-	-0.0412*** (0.0125)	-0.0278*** (0.0084)	-0.0200** (0.0104)
grsd	-	-	-	-0.0027 (0.0208)	0.0168 (0.0144)	0.0171 (0.0205)
wgrsd	-	-	-	0.0308** (0.0111)	0.0291*** (0.0055)	0.0218*** (0.0036)
_cons	0.1958 (0.2444)	0.6994*** (0.1819)	1.2025*** (0.2025)	1.3583*** (0.1172)	1.4665*** (0.0809)	1.7174*** (0.1158)
$R^2$	0.2150	0.2291	0.2297	0.3427	0.3465	0.2715
표본수	467			336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를 의미하며, \*\*\*은 1%, \*\*은 5%, \*은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 V. 요약 및 시사점

본 논문에서 우리는 사회자본이 경제안정성에 미치는 경로에 대해 검토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사회자본의 주요 지표들과 경제안정성 사이의 관계를 확인했다.

‘제3의 자본’으로도 불리는 사회자본과 관련한 기존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사회자본은 정부의 경제관리 능력, 정치안정, 공동의 문제해결 노력, 금융용이성,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고용 기회 및 안정성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경제변동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사회자본의 경제안정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패널회귀와 패널분위회귀분석을 통해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실증분석 결과는 <표 13>에 요약되어 있다. 사회신뢰 지표는 대체적으로 고용률 안정성을 높이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1인당 성장률 안정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가 혼재되어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변동성에 대한 사회신뢰 지표의 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부호를 갖는 경우만을 비교할 때에는 1인당 GDP성장률 안정성에 대한 영향이 고용률의 안정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을 확인했다. 그리고 정부신뢰도와 의회신뢰도는 1인당 GDP성장률과 고용률의 안정성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지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2> 실증분석 결과 요약

사회 자본	경제변동성	패널회귀		패널분위회귀		
		고정효과	임의효과	0.25	0.50	0.75
일반 신뢰도	1인당 성장률	0.0177	-0.0059	0.0170***	0.0177***	0.0175*
	고용률	-0.0083	-0.0071**	-0.0062***	-0.0083***	-0.0095***
정부 신뢰도	1인당 성장률	-0.0290	-0.0173	-0.0269***	-0.0290***	-0.0399***
	고용률	-0.0214**	-0.0104**	-0.0192***	-0.0214***	-0.0214***
의회 신뢰도	1인당 성장률	-0.0242	-0.0191**	-0.0210***	-0.0242***	-0.0273***
	고용률	-0.0083	-0.0071**	-0.0066***	-0.0083***	-0.0076***
공정성	1인당 성장률	0.2372	-0.3889**	0.2364***	0.2372***	0.2434***
	고용률	0.2152	-0.1861***	0.4145***	0.4197***	0.3962***
부패도	1인당 성장률	0.2246	-0.1980**	0.3033***	0.2469***	0.1583***
	고용률	-0.1677**	-0.0075	-0.1663***	-0.1512***	-0.1648***

주: \*\*\*은 1%, \*\*은 5%, \*은 10% 수준에서 유의함.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할 때, 한국의 경제 및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신뢰도와 의회신뢰도를 높이고 부패수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의회신뢰도가 낮게 나타나는데,<sup>31)</sup> 이는 정치 불안으로 인한 경제변동성의 확대라는 문제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의회가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는 진원지가 아닌 사회적 갈등을

31) 2010~2014년 WVS에서 한국의 의회신뢰도는 25.6%로 나타나 데이터 확인이 가능한 OECD 15개 국가 중 9번째이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49.7%로 나타나 데이터 확인이 가능한 OECD 16개 국가 중 4번째로 높다. 그러나 정부신뢰도에 대한 조사 결과는 조사기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2016년도에 OECD 44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갤럽의 정부신뢰도 조사에서 한국은 41위를 차지하여 하위권에 속해 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의 차이는 신뢰도가 주관적 판단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조사 설계 및 시점에 따라 큰 변동성을 보이는 특징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소하는 대의민주주의 실현의 장이 되도록 정당 간 협치의 영역을 넓혀가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가 제시하는 핵심 중장기 정책기조가 변하면서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는 것도 경제변동성(정치적 경기변동)을 크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치권이 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강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지자체 등을 포괄하는 사회적 대통합기구 및 협의체의 구성을 고려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정치권의 국민적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의 주요 지표들과 경제 변수들의 안정성 간의 관계를 분석했으나, 사회자본이 집합적 특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사회자본 지표들 간의 관계를 밝히고 이들과 경제안정성 사이의 복합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리고 경제변동이 사회자본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sup>32)</sup> 이와 관련한 심도 깊은 이론적 연구와 함께 이들 변수들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자본을 측정하고 국민경제와의 관계를 이론적·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도 필요한 상황이다.<sup>33)</sup> 이들에 관한 연구는 향후 과제로 남겨두도록 한다.

## 참 고 문 헌

- 고경훈 · 안영훈 · 김진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자본 측정 및 증진방안』,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2012.
- 곽노선, “정부지출과 경기변동성,”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원 공동 정책세미나, 한국조세연구원, 2013.

32) 예를 들어, 경기변동 확대에 의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 확대는 사회신뢰 축적과 네트워크 구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제도적 규범의 도입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33) 한국에서 사회자본과 관련한 직접적인 조사 결과가 부족한 상황에서 통계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대리변수를 통해 사회자본의 측정을 시도한 최종일·이기동(2013)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그들은 통계청의 ‘사회조사’와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15개의 사회자본 관련 지표를 제시한다.

- 서미영·임재영, “사회적경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사회 자본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9권 제3호, 2015, 303~322.
- 유석춘·장미혜, “사회자본과 한국사회,”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유석춘·장미혜·정병은·배영 공편역), 그린출판사, 2003, 15~57.
- 최석현·조창현·정무권,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사회자본 형성전략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연결망 재구축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9권 제1호, 2012, 125~151.
- 최종일·이기동, “인자분석에 의한 우리나라 지역별 사회적 자본의 측정,” 『韓國經濟研究』 제31권 제1호, 2013, 219~251.
- Acemoglu, D., S. Johnson, J. Robinson, and Y. Thaicharoen, “Institutional Causes, Macroeconomic Symptoms: Volatility, Crises and Growth,”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50(1), 2003, 49~123.
- Aguilera, M. B., “The Impact of the Worker: How Social Capital and Human Capital Influence the Job Tenure of Formerly Undocumented Mexican Immigrants,” *Sociological Inquiry*, 73(1), 2003, 52~83.
- Aldrich, D. P., *Building Resilience: Social Capital in Post-Disaster Recove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 Bartley, M., *Capability and Resilience: Beating the odds*, ESRC, 2008.
- Bentolila, S., C. Michelacci, and J. Suarez, “Social Contacts and Occupational Choice,” CEPR discussion paper no. 4308, 2003.
- Berggren, N., M. Elinder, and H. Jordahl, “Trust and Growth: A Shaky Relationship,” *Empirical Economics*, 35, 2008, 251~274.
- Beugelsdijk, S., H. de Groot, and A. van Schaik, “Trust and Economic Growth: A Robustness Analysis,” *Oxford Economic Papers*, 56, 2004, 118~134.
- Beugelsdijk, S. and A. van Schaik, “Social Capital and Growth in European Regions: An Empirical Test,”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21, 2005, 301~325.
- Bjørnskov, C., “How Does Social Trust Affect Economic Growth?” Aarhus School of Business, Department of Economics working paper 06-2, 2006.
- \_\_\_\_\_, “Determinants of Generalized Trust: A Cross-Country Comparison,” *Public Choice*, 130(1-2), 2007, 1~21.

- \_\_\_\_\_, “Economic Growth,” in G. T. Svendsen and G. L. H. Svendsen(eds.), *Handbook of Social Capital: The Troika of Sociology, Political Science and Economics*, Edward Elgar, 2009.
- Bourdieu, P.,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Greenwood, 1986.
- Canay, I. A., “A Simple Approach to Quantile Regression for Panel Data,” *The Econometrics Journal*, 14(3), 2011, 368~386.
- Coates, D. and J. C. Heckelman, “Interest Groups and Investment: A Further Test of the Olson Hypothesis,” *Public Choice*, 117, 2003, 333~340.
- Coleman, J. S.,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1988, 95~120.
- \_\_\_\_\_,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 Fukuyama, F., *The Great Disruption: Human Nature and Reconstitution of Social Order*, The Free Press, 1995.
- Giovanni, J. and A. A. Levchenko(2009), “Trade Openness and Volatilit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1(3), 558~585.
- Glaeser, E. L., D. I. Laibson, J. A. Scheinkman, and C. L. Soutter, “Measuring Trus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5(3), 2000, 811~846.
- Helliwell, J. F., “Economic Growth and Social Capital in Asia,” NBER Working Paper no. 5470, 1996.
- Hodgson, G. M., “What is Capital? Economists and Sociologists Have Changed Its Meaning: Should It Be Changed Back?”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38(5), 2014, 1063~1086.
- Knack, S., “Groups, Growth and Trust: Cross-Country Evidence on the Olson and Putnam Hypothesis,” *Public Choice*, 117, 2003, 341~355.
- Knack, S. and P. Keefer,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4), 1997, 1251~1288.
- Leana, C. R. and H. J. van Buren III, “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and Employment Practices,”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4(3), 1999, 538~555.
- Ostrom, E. and T. K. Ahn, “The Meaning of Social Capital and Its Link to

- Collective Action,” in G. T. Svendsen and G. L. H. Svendsen(eds.), *Handbook of Social Capital: The Troika of Sociology, Political Science and Economics*, Edward Elgar, 2009.
- Patulny, R., “Social Capital Norms, Networks and Practices: A Critical Evaluation,” SPRC discussion paper no. 134, University of NSW, 2004.
- Putnam, R. D.,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 \_\_\_\_\_,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 1995, 65~78.
- \_\_\_\_\_,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and Schuster, 2000.
- Sabatini, F., “The Labour Market,” in G. T. Svendsen and G. L. H. Svendsen(eds.), *Handbook of Social Capital: The Troika of Sociology, Political Science and Economics*, Edward Elgar, 2009.
- Sangnier, M., “Does Trust Favor Macroeconomic Stability?,”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41(3), 2013, 653~668.
- Svendsen, G. T. and G. L. H. Svendsen(eds.), *Handbook of Social Capital: The Troika of Sociology, Political Science and Economics*, Edward Elgar, 2009.
- Szreter, S., “The State of Social Capital: Bringing Back in Power, Politics and History,” *Theory and Society*, 31(5), 2002, 573~621.
- Szreter, S. and M. Woolcock, “Health by Association? Social Capital, Social Theory,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Public Health,”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33(4), 2004, 650~667.
- Torsvik, G.,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Rationality and Society*, 12(4), 2000, 451~476.
- Woolcock, M.,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2), 1998, 151~208.
- Zak, P. J. and S. Knack, “Trust and Growth,” *Economic Journal*, 111(470), 2001, 295~321.

데이터 출처

ILO, ILO Stat.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Transparency International,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World Bank, WDI Database Archives(Beta).

World Values Survey, Online Data Analysis.

[Abstract]

##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Economic Stability

Jung Hoon Kim\* · Ki-Ho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acts of social trust on economic stability in both theoretical and empirical aspects. The empirical results of panel (quantile) regressions show that the coefficient values of social trust indices on the volatility of employment rat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negative, but those on the volatility of GDP growth per capita are mixed. Also, we find that government trust and parliament trus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s with the volatility of GDP growth per capita as well as that of employment rates, which implies that political trust might be an important factor for economic stability.

Keywords: social capital, social trust, economic stability, employment stability,  
panel quantile regression

JEL Classification: B55, E02, E32

---

\* First Author, Research Fellow, Gyunggi Research Institute, Tel: +82-31-850-6004,  
E-mail: jh6911@gri.re.kr

\*\* Corresponding Author, Senior Economist, Economic Research Institute, The Bank of  
Korea, Tel: +82-2-759-5422, E-mail: kihokim@bok.or.kr